

그리고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서 진정 미안합니다 —달마의 ‘가족 세우기’

| 달마 | 플라 울김 |

이 글은 지난 6월에 있었던 가족세우기의 한 사례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마음속에 서로의 어긋난 회한과 아픔, 분노의 에너지로 짜여진 그물로 연결되어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때로는 미약한 것이기는 하나 커다란 불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서로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말 한마디와 태도가 전체 에너지 그물을 온전하게 함을 봅니다(편집자 주).

누가 **Family Constellations Therapy**(이하 ‘가족세우기 요법’라고 지칭함)를 계발했는가?

가족세우기 요법은 독일 출신의 세라피스트인 버트 헬링거(Bert Hellinger)에 의해 계발되었다. 거의 20년 동안 남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선교사로 활동했던 버트 헬링거는 이후 정신분석학과 여러 형태의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다.

미국의 정신요법가인 버지니아 사티어(Virginia Satire)로부터 처음으로 체계적 가족치료법을 경험한 이후 그는 이 테크닉의 계발을 위해 일생을 바치게 된다.

20년이 채 안되어 가족세우기 요법은 독일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족세우기를 주제로 50여 권의 책이 독일어와 영어 및 다른 언어로 출판되었다.

4년 전, 미내사에 의해 버트 헬링거가 초청되면서 한국에서 가족세우기 요법이 처음 소개되었다. 현재 80세가 넘는 버트 헬링거는 기독교 단체의 초청으로 올해 4월 한국을 다시 찾아와 강연 및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가족세우기 요법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은 누구든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가족세우기 요법에서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은 큰 중요성을 갖는다.

자신의 부모님을 경시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 자신을 거부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반은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머니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은 독특하고 특별하다. 하지만 이러한 독특함이나 특별함은 우리가 부모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그 두 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활짝 피어날 수 있다.

가족세우기 요법에서는 가족을 분리된 개체들의 모임이 아닌 하나의 단일체, 혹은 가족적 의식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유기체로 간주한다. 그런 까닭에 다른 조직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족 역시 가족조직(family system)이라고 부른다.

모든 조직체와 마찬가지로 가족 안에도 근간이 되는 법칙이 존재한다. 예컨대 하나의 가족조직 안에 태어난 구성원들은 누구나 소속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가족 내에서 소속권을 박탈당했거나 제외당했을 경우, 혹은 잊혀지게 되거나 그의 존재가 존중 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그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된다. 영향이란 질병의 형태나 계속적인 실패 혹은 자살성향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가족조직의 근간이 되는 법칙은 부당을 온당함으로 바꾸고자 할 뿐만 아니라 주고받기의 균형을 되찾고자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로 인한 결과물을 지고 가야만 한다. 만일 과거 세대가 가족의 근간이 되는 법칙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결국 나중에 오는 세대 중에서 가장 어린 구성원이 그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가족세우기 요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가족세우기 요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족조직 내에 감추어진 긴장 혹은 역학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테크닉이다. 워크샵에 참여한 사람들이 의뢰인의 가족 구성원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의뢰인이 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가족을 세우게 되는데, 처음 가족이 세워진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에서 사랑의 물줄기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이유를 볼 수 있다.

또한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로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는지, 왜 질병에 걸리거나 삶에서 성취 대신에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감추어진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즉,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발걸음을 뚝 수 있게 된다. 대개의 경우 가족세우기 세션이 끝나고 난 후, 아주 신비스럽게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비로소 막혀 있던 사랑의 물줄기가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짧은 명상 한 가지 - 동의

동 의와 관련된 명상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을 감습니다.

동 의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동 의란 자유를 위한 주된 수단입니다.

일단 동 의를 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무엇과도 적대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부모님에게 동 의합니다. 그분들의 있는 그대로 모습에, 동 의합니다.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조상들에게 동 의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 자신에게 동 의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무언가 달라야 한다는 요구를 버리고, 지금 당신의 모습이 최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동 의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도 동 의를 표합니다. 과거에 당신 자신과 관련하여 거부했던 모든 것에 동 의를 합니다.

당신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예, 나는 동 의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간단한 동 의가 당신의 영혼과 육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얻은 성공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도 똑같이 동 의합니다. 성공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실패 역시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동 의를 함으로써 당신은 성공도 실패도 뒤에 남겨둔 채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상황, 학교에서, 가정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조건과 상황에 동 의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혹시 갈등이 있다면, 이 에도 동 의하고 저 에도 동 의를 합니다. 심지어 갈등 그 자체에 동 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은 강인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질병에 걸렸거나 혹은 다른 특별한 상황을 만났더라도 그대로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동의를 표한 모든 것은 조만간 당신을 뒤에 남겨둔 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동의를 받고 나면, 그 임무가 완수되기 때문입니다.

| 사례 |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로 몰려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죽임을 당하다.

| 요약 | 가족적 얽힘 관계 : 의뢰인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갈 무렵 공산주의자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의뢰인의 누나는 열아홉 살 때 자살했다. 세션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결혼 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결혼을 하기 전 여자는 죽음을 맞이했다. 아버지는 여자를 따라서 죽고자 했고, 그의 딸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다. 어머니의 분노는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는 아들에게로 옮겨갔다.

| 해결 |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신은 여전히 첫 번째 여자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누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중하는 마음을 표한다. 아들은 또한 어머니에게도 존경심을 표한다. 어머니와 아들은 딸이자 누나에게 작별을 고한다. 비로소 어머니와 아들이 화해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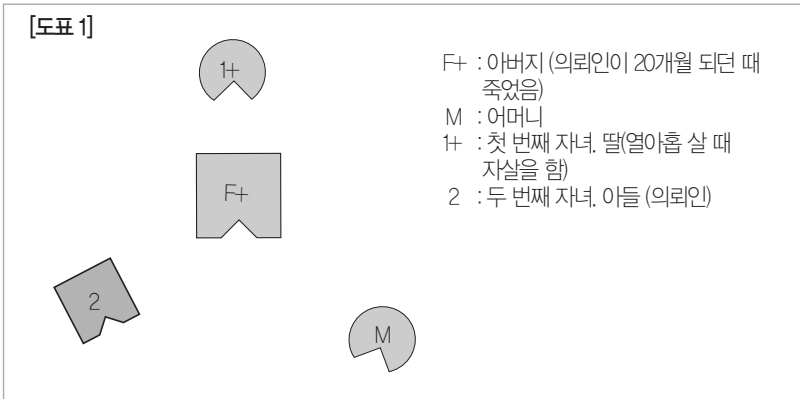
| 문제 | 의뢰인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의뢰인이 2살이 채 되기도 전인 전쟁 말기에 공산주의자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 가족과 관련된 사실 | 의뢰인은 약 55세 가량 된 남자로 이혼을 했으며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의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로 몰려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의뢰인은 이 남매 중에서 둘째로 그의 누나는 열아홉 살 때 자살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족은 연좌제로 인해 20년 이상 경찰의 보이지 않는 감시를 당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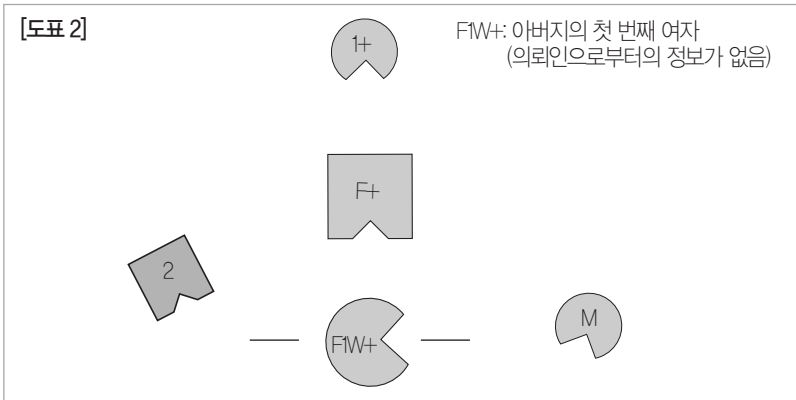
| 세션 | 달마가 의뢰인에게 대리인들을 선택한 뒤 원래가족을 세우라고 요청한다. 의뢰인의 모습에서 강한 감정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아버지를 세울 때, 의뢰인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 해설 |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 앞 (그림의 삼각으로 들어간 부분이 보고 있는 정면이다.)의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가족조직으로부터 제외 당한 사람이 있음을 암시한다. 아버지 뒤에 서있는 딸의 위치는 자살을 통해 그녀가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달마가 대리인들에게 그들이 인식한 내용에 관해서 물어본다. 어머니는 남편이 서있는 쪽을 바라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한다. 아버지는 머리가 자꾸만 아래로 떨어지고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없다고 말한다. 딸은

아버지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버지에게로 자신의 모든 관심이 쏠려있다고 말한다. 아들은 크게 이 상황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달마가 또 다른 대리인을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의 바닥에 놓는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 해설 | 대리인이 계속해서 바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곧 그가 죽은 사람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시점에서 달마는 의뢰인에게 그의 원래가족 혹은 아버지의 원래가족 중에서 요절한(untimely)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 혹은 아버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심각한 남녀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본다. 의뢰인은 자신이 아는 바에 의하면 요절한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사귀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사람이 바닥에 놓자 아버지는 그가 빈 공간이 아닌 그 자리에 누워 있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동의한다. 어머니는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다. 그 쪽을 바라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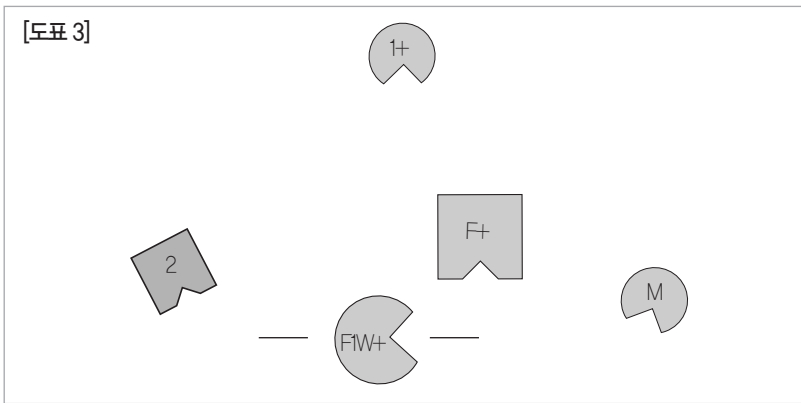
의뢰인은 아버지의 첫 번째 여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단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이 집안의 어른들에 의해서 맺어진 중매결혼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아버지의 원래가족 쪽으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거나 요절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인다.

| 해설 | 아버지의 행동이나 어머니의 분노로 보아서 이 사람이 여자이며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임이 명백하다. 여자가 바닥에 누워있다는 것은 곧 그녀가 결혼 전에 죽었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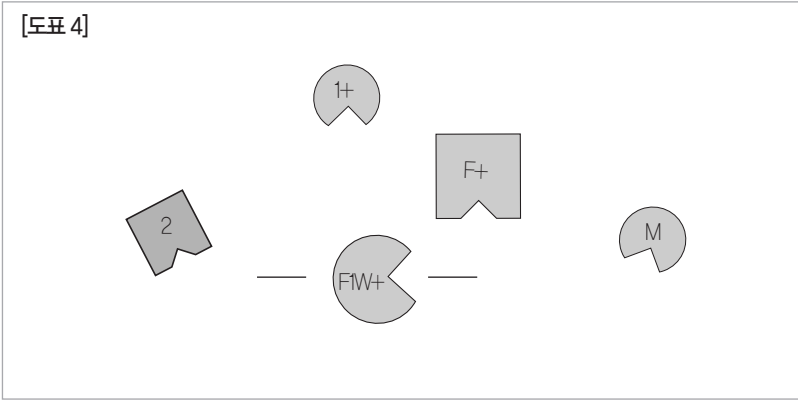
세션은 보통의 방식(regular family constellation)으로 시작되었다. 즉, 대리인들에게 느낌이나 감정 혹은 몸의 변화 등을 묻고 그들의 위치를 재배치하며 해결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서로에게 해결의 열쇠가 되는 문장을 제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 이르러서 대리인들의 느낌에 대한 좀 더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움직임(movement of the soul)이라는 방식이 적용된다.

달마가 대리인들에게 내면의 느낌을 따라가도록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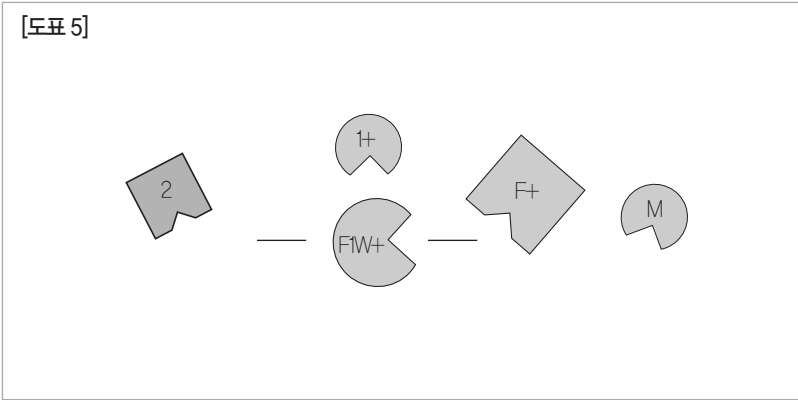
아버지가 슬픈 모습으로 바닥에 누워 있는 여자를 잠깐 동안 쳐다본다. 그러더니 여자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잠시 후 그는 여자의 발목 주변을 마사지하기 시작한다

[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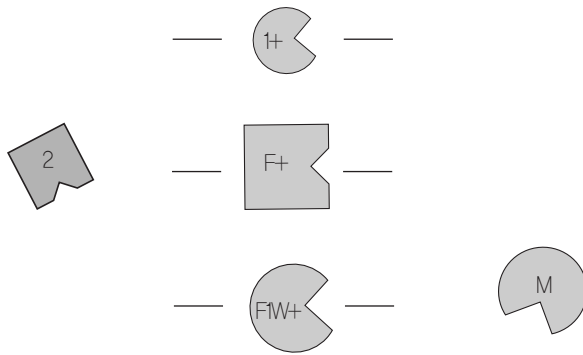
얼마 후, 아버지가 딸을 가까이 데리고 온다. 딸이 무릎을 꿇고 앉더니 여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마사지를 시작한다.

[도표 5]



아버지는 여자의 다리를 쪽 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두 발을 마사지한다.

[도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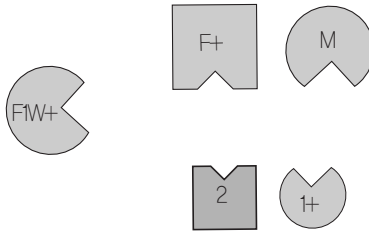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 아버지가 여자의 곁에 눕는다. 딸 역시 아버지 곁에 눕는다. 여기서 영혼의 움직임이 중단된다.

| 해설 | 영혼의 움직임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극도로 슬퍼하고 있음이 극명해진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여자 곁에 머무는 것뿐이다. 그가 찾아낸 자신의 자리는 여자 곁뿐이다.

여자는 이 가족에게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소속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족조직 내에서 작용하는 법칙에 따르면 소속될 권리를 가진 모든 가족 구성원은 그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세션을 통해서 아버지의 첫 번째 여자가 이 가족 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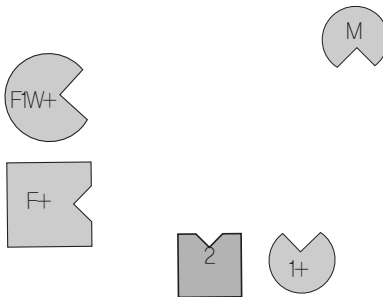
여자가 의뢰인에게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까닭에 어떤 식으로든 그녀가 나중세대로부터 인정받거나 존중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대리인들이 서열에 따라서 재배치된다.

[도표 7]



어머니는 남편 곁에 서있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그녀는 남편은 물론 그의 첫 번째 여자도 보고 싶지 않다. 어머니의 유일한 관심은 딸뿐이다. 아버지는 지금 서있는 자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첫 번째 여자의 곁에 서있고 싶다. 그의 뜻에 따라서 남편을 첫 번째 여자 곁에 세운다.

[도표 8]



남편은 자신에게 맞는 자리가 여기라면서 훨씬 기분이 낫다고 표현한다. 달마가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도록 요청한다. 아버지가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도록 요청 받는다.

“당신은 나의 부인이고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을 했던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면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한 말이 옳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인 역시 남편의 말이 진실이라며 받아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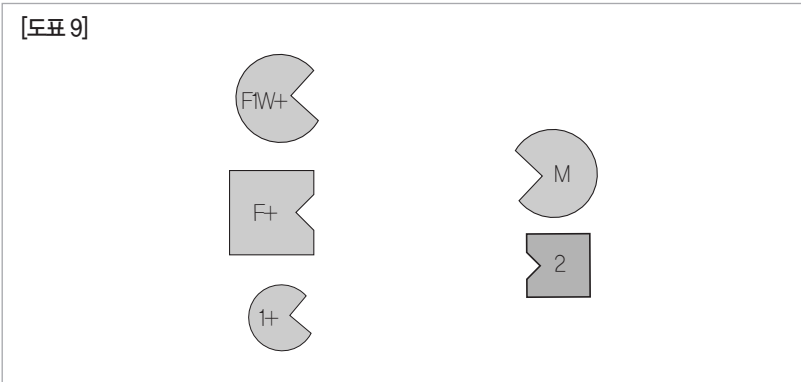
이제 달마가 어머니에게 남편의 첫 번째 여자를 마주 보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처음에 여자를 바라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더니 큰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난 뒤 여자를 마주본다.

달마가 어머니에게 여자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하라고 요청한다.

“당신이 첫 번째이고 나는 두 번째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리를 존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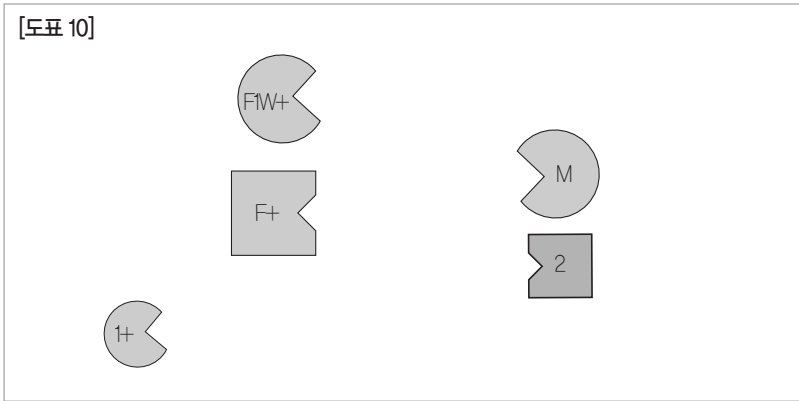
이 말을 하고 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녀는 말을 하기 전보다 마음이 훨씬 더 담담하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첫 번째 여자 역시 인정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한다.

[도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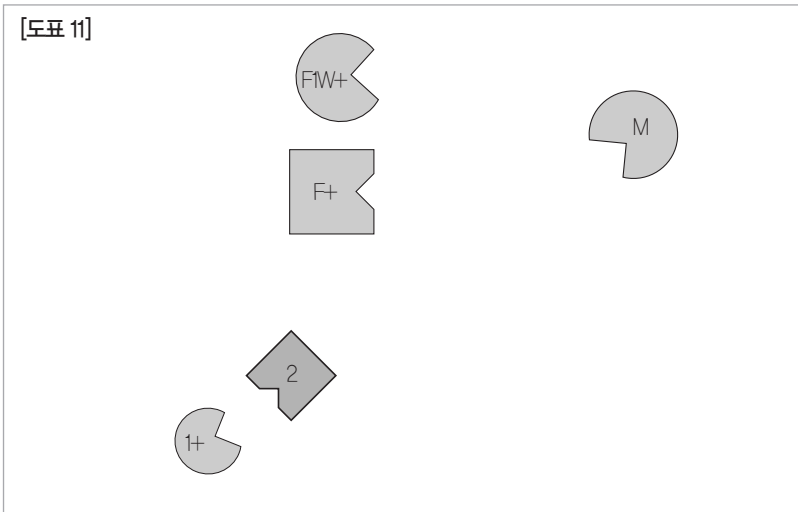
딸은 아버지 곁에 나란히 서있고 싶어 한다. 달마가 딸을 아버지 곁에 세운다. 어머니는 아들을 옆에 세운 채 남편의 맞은편에 선다. 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딸에게 집중되어 있다.

[도표 10]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딸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꽤 멀리 옮겨간다.

[도표 11]



아들은 누나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싶어 한다. 그가 누나 앞에 선다. 어머니 역시 딸과 아들이 서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세운다. 달마가 아들에게 누나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도록 요청한다.

“당신은 나의 누님이고 나는 당신의 동생입니다. 누나는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나는 누나를 사랑하고 누나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죽음을 선택한 누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언젠가 나의 시간이 되거든 나 역시 누나에게 동참할 것입니다.” 동생은 누나에게 두 손을 모은 뒤 몸이 반절 정도 굽혀지도록 절을 한다. 그런 다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선다. 그리고 두 남매가 서로를 끌어안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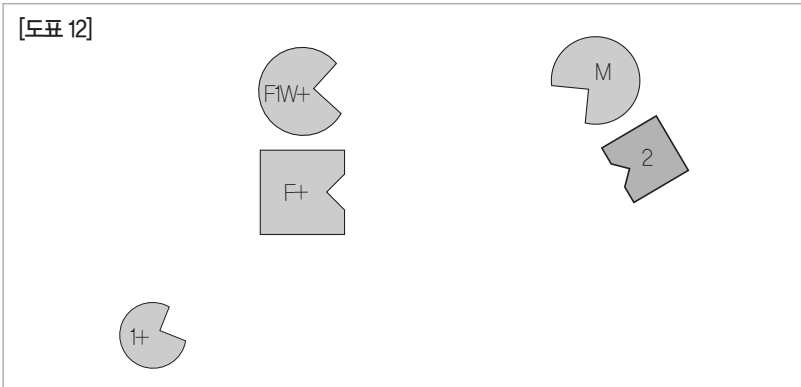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란다. 나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스럽다. 너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잘 돌봐드리도록 해라.”

| 해설 | 누나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동생이 살아남아서 어머니를 잘 돌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잠시 후, 동생이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간다. 이때 동생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자 한다.

“이 말을 누나에게 꼭 해주고 싶어요. 누나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누나.”

(나중에 의뢰인은 그의 누나가 실제로 매우 아름다웠으며 꼭 영화배우 같았다고 덧붙였다. 많은 남자들은 물론 어린 그 자신도 언제나 누나를 사모했었다고 말했다.)

[도표 12]



달마가 의뢰인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마주보고 서게 한 뒤 다음과 같은 말을 하도록 요청한다.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시고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보고 싶고 제 가슴 속에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들이 이마와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가장 낮은 자세로 아버지에게 절을 한다. 자리에서 일어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걸음 다가서더니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그리고 잠깐 동안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다시 아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다.

달마가 의뢰인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마주보고 서게 한 뒤 다음과 같은 말을 하도록 요청한다.

“당신은 저의 어머니이시고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저의 어머니로서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아들이 가장 낮은 자세로 어머니 앞에서 절을 한다. 자리에서 일어난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부둥켜안는다. 어머니와 아들이 울음을 터뜨린다.

이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역할을 바꾸어 의뢰인이 자신의 자리로 가서 선다.

달마가 그에게 가족 전체를 한 번 둘러보라고 요청한다. 그런 다음 새로운 가족 이미지를 그의 영혼으로 가져가라고 말한다. 의뢰인은 큰 감동을 받은 모습이고 아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절을 한다.

그런 다음 의뢰인은 누나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누나 앞에서 그는 가장 낮은 자세로 절을 한다. 누나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동생에게 말한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인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온다.

어머니는 딸을 보내기 전에 꼭 한 번 안아보고 싶다고 말한다. 딸이

어머니에게 다가오고 두 사람은 사랑과 눈물로 서로를 부둥켜안는다. 아들도 두 사람을 부둥켜안는다. 세 사람이 함께 울음을 터뜨린다. 얼마 후, 딸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이제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절을 한다. 딸 역시 자신이 서있는 방의 한 끝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절을 한다. 얼마 후,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부둥켜안는다.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세션이 끝난 후 달마는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설을 내놓았다.

| 사실과 관련된 상황 |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인터뷰를 하던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정부에서 내놓은 자진신고 기간 중에 경찰을 찾아가서 자신의 공산주의 활동 이력에 대해서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수를 했던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끌려간 뒤 사형 당했다.

| 해설 |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더 큰 힘(greater force)이 작용하게 된다. 각각의 개체와 그러한 상황에 대한 그들의 대응력은 그 힘과 비교해볼 때 미약하기 그지없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죽이고, 수많은 여자들이 남편을 잃고 수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잃었다.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들을 상실한 나머지 가족들에 의해 애도와 존중을 받아야만 한다.

우리가 '억울함' 혹은 '부당함'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잃은 상실을 애도하는 대신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게 된다.


더 큰 힘이 작용하는 전쟁 중에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게 될 때, 선에도 동의하고 악에도 동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수 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된다. 자신 앞에 펼쳐진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할 수 있는 힘 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션과 관련하여 우리가 짊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사랑이 놀라우리만치 강렬하다는 점이다. 의식적인 면에서 보면 그 강도가 약하게 보일지라도 더 깊은 단계, 즉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할 수 없이 강하다. 예컨대 의뢰인의 누나가 아버지를 죽음으로까지 따르게 된 것 역시 그러한 사랑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되면, 특히나 비극적인 환경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될 경우 자녀는 아버지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무의식적인 열망을 갖게 된다.

마술적 사고(magical thinking)에 의해서 자녀는 아버지 곁에 나란히 눕게 됨으로써 아버지가 지고 가야만 하는 운명의 짐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류의 사랑을 ‘눈먼 사랑(blind love)’이라고 부른다. 실제 세션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 역시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자기중심적이고 일방통행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나에게로 전해지는 사랑도 볼 수 있게 된다. 즉, 자녀가 아버지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삶을 계속해 나갈 때 아버지의 행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위 단계의 이해를 우리는 ‘성숙한 사랑’ 혹은 ‘깨어있는 사랑 (conscious love)’이라고 부른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